

‘누적 매출 30억’ 곡성물, 농·특산물 플랫폼 자리매김

회원 4만5000명·209만명 방문...소상공인 판로 확대 전 상품 무료배송·카카오톡 쿠폰 지급 등 혜택 ‘눈길’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 누적 매출이 30억8000만원을 넘어서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누적 매출 20억원 달성 이후 약 8개월 만에 10억원 이상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곡성물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

곡성물은 2023년 9월 개점 이후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이다. 곡성물에는 126개 업체가 입점해 쌀, 멜론,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65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4만 5000여명, 누적 방문자 수는 209만여명을 넘어섰다.

개점 초기 농·특산물 판매 중심의 온라인몰로 출발한 곡성물은 현재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 생활·관광 상품까지 판매 영역을 넓히며 지역 생산자와 전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기반으로 성장했다.



곡성물의 가장 큰 특징은 판매수수료가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반 온라인 판매채널과 달리 판매수수료 없이 운영돼 입점 업체가 희망하는 판매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곡성물에서 발생한 매출은 농가와 소상공

40% 할인전, ‘유럽체소의 기준, 곡성물×지터팝 기획전’ 등 입점 업체 단독 할인 기획전은 업체 자체 할인으로 추진돼 군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업체 홍보와 판매 확대를 이끌었다.

올해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한 ‘곡성물 ROSE FESTA 최대 50% 할인 특별전’도 대표적인 연계 판촉 사례다. 축제 기간에 맞춰 곡성물 입점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업체 자체 할인과 곡성물 할인 혜택을 결합해 소비자 체감 혜택을 높였다.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수요특기도 신규 입점 품목과 매출 저조 품목의 홍보·판매에 힘을 보탤다.

전 상품 무료배송, 카카오톡 채널 쿠폰

지금, 이벤트 페이지 운영 등 소비자 친화형 혜택도 신규 회원 유입과 재구매 증가로 이어졌다.

곡성물은 지역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곡성물 입점 업체 중 64개소가 매월 자발적인 나눔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의 매출 일부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물 누적 매출 30억원 달성은 지역 농업인과 입점업체, 소비자,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다”며 “곡성물을 통한 판매 수익이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



광양 파노라마워크 조감도



이순신대교

사진제공=광양시청

‘낮과 밤이 빛나는 도시’ 광양 매력여행 알린다

시, 4~7일 서울국제관광전시 별빛야영장 등 콘텐츠 홍보 수도권 관광객 유치·걷고 체형하며 머무는 여행' 집중

광양시가 낮과 밤을 연계한 신규 관광 자원과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4~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6)’에 참가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관광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섬진강별빛스카이, 배알도별빛야영장, 남파랑길 광양 코스 등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여기에 야간 경관과 미식 콘텐츠를 더해 ‘걷고 체형하며 머무는 광양여행’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개장을 앞둔 구봉산 체험

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를 함께 소개해 신규 관광자원을 알리고 향후 방문 수요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단체관광, 운동주 테마관광, 개별 미션투어 등 관광객 유형과 여행 목적에 맞춘 맞춤형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퍼즐로 만나는 광양관광 이벤트’와 ‘광양관광 SNS 팔로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에게는 에코백과 타포린백 등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서울국제관광전은

수도권 관광객에게 광양의 관광자원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걷기·야간·미식 콘텐츠와 신규 관광자원을 연계해 다시 찾고 머무는 관광도시 광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1회를 맞는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관광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 일반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관광 트렌드와 지역 관광 콘텐츠를 공유하는 국내 대표 국제관광 박람회로, 40여개국, 400여개 기관·업체, 500여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장흥군-귀뚜라미문화재단 중·고·대학생 55명에 장학금 지원

장흥군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장흥군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장학생,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해 지역 인재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사업은 귀뚜라미 문화재단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중·고·대학생 55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학생별 장학금 규모는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며, 학업 우수와 예체능·기술 분야 우수, 저소득, 모범추천 분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발이 이뤄졌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1985년 설립 이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이념 아래 장학사업과 교육지원, 사회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7만여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이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610억원(누적)에 달한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귀뚜라미 문화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장흥군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장흥군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순천, 송광면 장안마을 버스 5회 운행 보성군과 협의·확대...주민 교통편의 개선

순천시는 보성군과 협의를 거쳐 송광면 장안마을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안마을 송광장을 경유하는 보성교통 농어촌버스 운영을 지난 1일부터 기존 1일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장안마을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순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송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송광면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 공공서 방문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이동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보성교통 농어촌버스는 마을 내부에 설치된 송광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규 노선 신설보다 기존 보성교통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보성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운행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장안마을을 운행하는



보성교통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는 기존 1일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장안마을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특히 어르신들의 송광면 소재지 및 인근 생활권 이동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 확대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주민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한 협력 사례다”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보성, 영농철 안정적 농촌 인력 기반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농가·고용주 준수사항 등 안내

보성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하고 있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와 고용 관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현재 4개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활한 인력 수급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74개 농가에 2060명의 외국인이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며, 하반기에는 347개 농가에 1266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고흥,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 대응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논의했다.

또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방문객 대상 안전수칙 안내방송 및 현장 캠페인을 실시해 수상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은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구명환·구명줄 등을 충분히 비치해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부서 간 협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대비해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와 순찰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놀이 안전 관련 6개 부서가 참석해 물놀이 시간 외 안전관리,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 물놀이 지정구역 외 안전관리 대책, 위험지역 예찰 강화,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